



지난해 광주시가 주관한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에 참여한 등산객들이 정상 3봉 중 하나인 지왕봉 인근에서 군부대 시설을 배경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수정병풍 두른 천혜비경 최정상 자연 그대로 복원... “시민 품으로”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⑦ 해결 과제

방송·통신 철폐 산발 설치
군사시설 주둔 환경 훼손 심각
“정상 회복”시민들 20년 숙원
“중계탑 통합·군부대 이전해야”

무등산 최정상에 들어선 공군 방공포 부대와 정상 인근에 산발적으로 설치된 방송·통신 철폐탑은 무등산의 절경을 훼손하는 대표적 흉물로 꼽힌다. 특히 무등산 최고의 비경인 천왕봉과 지왕봉, 인왕봉 등 천지인(天地人) 삼봉은 군부대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과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자연환경도 심하게 훼손돼 있다.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군부대와 철폐탑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정상 이전 시민의 품으로=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무등산 정상 회복 운동은 그 역사가 20년이 넘는 정도로 광주 시민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1989년 무등산보호단체인협의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상회복운동으로 지난 1990년 정상 일부가 개방된데 이어 1996년 중봉지역 공군부대 이전을 이끌어 내는 등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무등산 최정상(1187m)에 위치한 공군 방공포 부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지난 1966년 광주시 광산구 공군전투비행단과 함께 들어선 이후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탐방객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그나마 군부대 측은 지난 2011년부터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연 4회 정상개방 행사를 추진, 현재까지 6차례를 개방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군사독재 시대 아니고 광주시민의 보물인 무등산을 놓고 생색내기식 개방행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상회복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면서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등산의 군부대 철거를 지시했지만, 국방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광주 광산구의 공군전투비행단과 무등산의 공군 방공포 부대가 연계돼 있어 비행단을 이전하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체할 경우에만 군부대 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위성 등 최첨단 군사장비가 투입되는 시대에 누구에게나 노출된 산 꼭대기에 방공포 기지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군사전략이라며 맞서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16년 무등산 군사시설 이전을 목표로 조

만간 국방부 등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지만,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대체부지 확보와 막대한 이전비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잖은 상황이다.

◇홍물 방송·통신 철폐탑 통합해=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만큼 시급한 것은 정상주변에 산발적으로 설치된 방송·통신시설 송신철폐탑 통합이다.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해당 시설을 설치한 KBS, MBC, KBC 등 방송 3사를 비롯한 KT측과 송신철폐탑 통합논의를 벌이고 있다. 무등산 정상 인근에는 지난 1966년 KBS가 장봉재 등 2곳에 설치한 송신탑 2기와 무인중계소 철폐탑 1기, KT 제2중계소 철폐탑 1기, MBC와 KBC 송신탑 각 1기 등 4개 회사 6기의 철폐탑이 설치·운영 중이다.

지난 1997년 이전까지는 방송 3사의 송신탑 5기(3개소)와 한국통신의 송신탑 4기(2개소) 등 모두 5개소의 송신탑 9기가 설치돼 있었으나, 무등산 정상 회복운동이 시작되면서 철폐탑 3기(1997년 한국통신·2003년 누에봉 KT 1중계소)는 철거됐다. 당시 KT는 제 2 중계소도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방부 등 정부 13개 기관의 비상망 운영 등을 이유로 갑자기 취소했다.

방송 3사도 지난 1998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통합 위치를 장봉재로 정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통합비용에 가로막혀 답보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에 25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통합 사업의 주체를 놓고도 방송 3사, 또는 시와 방송 3사간 이권 및 주도권 다툼이 발생한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무등산의 정상회복을 위해서는 특정 단체의 사익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전략 마련과 함께 국방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기자회견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의 품격에 맞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 한 덩어리도 더 아름답고 품위있게 가꿔야 하며, 특히 정상에 즐비한 중계탑을 통합하고, 군부대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며 정상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나와 무등산 노원기 광주시청 녹지기획담당

자연정화로 보낸 공무원 초년시절



노원기(왼쪽)씨가 친구 가족들과 함께 1992년 10월 25일 무등산 입석대 앞에서 기념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90년대 나의 공직생활은 무등산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젊은 공무원(8급) 시절을 보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무등산을 보호하자는 자각운동이 일면서 오물수거 캠페인이 시작됐다.

1980년대 무등산을 찾은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무등산 곳곳에 그대로 묻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상태였다. 광주시와 시민들은 이러한 쓰레기를 다시 파내 산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돌샘이나 약수터 주변 골짜기 주변에 묻히거나 쌓여있는 쓰레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관리사무소의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한 봉황대와 중봉, 새인봉, 장봉재, 동화사, 규봉암, 꼬막재 등도 주요 쓰레기 매립지로 꼽혔다.

오물수거 캠페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쓰레기는 파내고 파내고 끝이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 당시 오물수거에 참여한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혀를 내둘렀다. 끝이 없을 것 같던 오물수거 작업도 1년여가 지나자 서서히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의식

도 많이 개선돼 쓰레기를 무등산에 버리고 가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무등산보호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매년 무등산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렸는데, 당시 일부 시민들이 모닥불을 피우는 바람에 산림이 심하게 훼손된 것이다. 1990년 새해맞이만 해도 하룻밤에 무등산 곳곳에서 모닥불이 피워졌고, 소나무 등 주변 나무들이 모닥불의 빨간불에 희생됐다.

당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 양은 무등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년 내내 산 아래로 지고 날라도 못 치울 만큼 엄청난 양이었다. 무등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무등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갈구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연합해 1990년 12월 새해맞이 행사의 자제를 당부하는 광주시장 연명으로 된 공문을 발송했다. 새해맞이 당일에는 주요 등산로에 계도요원을 배치했다. 당시 나도 무등산 곳곳을 누비며 무등산 보호 운동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 1991년 새해맞이에서는 모닥불을 피우는 등의 산림훼손 행위가 자취를 감췄다.

무등산 갤러리 김준호 작 '立石臺의 봄'(1993) Oil on Canvas(116.7 x 91cm)

“불혹의 나이가 채 되기도 전에 찾아든 병마와 싸우며 무등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4년여를 은둔생활을 하다가 무등산의 명소와 절경을 찾아 해매었다. 비로소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됐다. 그때부터 무등산이 자연스럽게 내 화폭에 자리 잡았다.”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